

교사
부흥회

“주님 말씀 한마디에 거듭나는 교사들”



11월 25일, 6주간의 짧지 않은 교사대학의 여정이 끝났다. 121명의 수료자를 낳은 이번 교사대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회 새교사대학의 커리큘럼을 따라 박원호 담임목사, 정요섭 교육목사 그리고 교육부의 전도사들이 신입교사를 포함한 전체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지난주는 장로회신학대학 박상진교수(기독교교육학)를 초대해 교사 부흥회로 모였다. 교사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거듭나는 교사로 새로워지기를 다짐했다.

한 영혼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교사의 모습은 참 아름답기만 하다.

예배 후에는 신입교사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과 함께 전체교사가 참여하는 만찬도가 있었다. 신형섭 기자

안수
집사회

안수집사들의 등반대회

지난 10일 우리교회 안수집사회에서는 부부동반 등반대회를 남한산성에서 가졌다.

곳은 날씨 예보에도 30여명의 부부들이 참석하여 산성 북문, 서문, 남문으로 2시간여의 등반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면서 많은 대화와 많은 것을 보았다. 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등반이 눈여겨졌는데 우리는 두 눈을 가졌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두 다리를 가졌어도 정상으로 걷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되었다. 등반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중 이창현 목사는 주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자들이오니 심신을 수련하여 주님과 교회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를 했고, 모임을 마치고 어둠이 내릴 때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려 모두는 은혜의 단비라며 감사찬송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무사히 하산하였다.

김홍용 안수집사(6-21)

청모회
수화공연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피조물



11월 21일 수요일예배 (감사주간)에 청모회(청각장애인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과 수화로 봉사하는 어머니들 모임)의 수화 특송과 청각 장애인 구역인 믿음 구역(416) 수화찬양이 있었다. 겪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말 못하는 고통을 잘 알지 못한다.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들은 그들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피조물이고 약간 불편할 뿐 그들에게 다른 무엇을 주었다 생각해야 한다. 세상 사는데 공평함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다고 한다.

모든 이들이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 날은 언제일까? 그날을 바라본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을만큼 흰히 보이겠지만 마음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잘 보이고 잘 들리기를 바란다.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청모회에서는 주님의교회 장애우팀과 함께 청각 장애인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안양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예배도 드리고 수화 교육도 한다. 수화 공연 후에 청각장애인들을 향한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렸다.

최영숙집사(1-4)

장애우 후원행사
방문

장애우들의 꿈! 함께 나눕시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는 천원의 가치를 그리 크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 사람의 천원이 선한 일을 위해 모였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동창이지만 가슴이 벅찬 보람! 한 사람의 거금보다 다수의 천원을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되도록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복지선교팀에서는 11월 26일(월)장애인 복지법인 무지개동산 예가원 2007년 후원행사에 다녀왔다. 순수한 장애우들이 있기에 세상이 보존되어진다고 한다. 많은 후원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7명의 장애우들로 구성된 난타공연을 들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잠재력을 느꼈다. 그러한 잠재력이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어 희망을 연주할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수들이 나와 여흥시간도 가졌다. 그들이 우리들 옆에 있는 것만도 고맙고, 우리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삶을 개척해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다.

이들은 복지법인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기술을 배운다. 세상과 가족의 짐이 아닌, 행복을 가지고 세상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신형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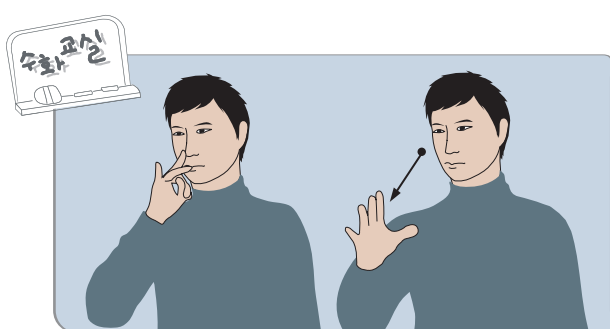


표준어

우리는 학교문법을 배우면서부터 '명사, 대명사, 동사..'같이 우리말의 학술어를 고유어가 아닌 한자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왜 고유어가 아닌 한자로 채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본의 말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많은 국어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갈말이 있습니다.

- 명사 : 이름씨
- 대명사 : 대이름씨
- 수사 : 셈씨
- 동사 : 움직씨
- 형용사 : 그림씨
- 부사 : 어찌씨
- 조사 : 토씨
- 관형사 : 매김씨
- 감탄사 : 느낌씨



안되다 [must not] 오른손 엄지와 중지를 동그렇게 하여검지를 코에 앞으로 튕기면 안되다 란 뜻

양육클래스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2주 전 구원론 양육클래스에서 남한산성을 찾아 야외수업을 다녀왔다. 청수장에서 강의를 먼저 듣고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가벼운 산책을 하였다. 우리는 유계구라모토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들으며 파사로운 햇살과 붉은 단풍이 물든 산을 올라갔다. “건강과 치유에 필요한 모든 것은 신이 자연에 이미 마련해두었다. 이를 찾는 것이 과학의 과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연 치유력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 숲에서 나는 맑고 향긋한 향기, 대지의 숨결, 태양, 맑은 공기, 붉은 단풍과 질푸른 소나무들은 우리를

자연의 향기에 흠뻑 취하게 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켰다. 자연의 신비와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크나큰 위안을 주는 존재인 것 같다.

성부께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경이감 속에서 머리를 숙일 뿐이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다.』(사103:10-11). 모든 인간의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란 점과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주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늘을 보며 산의 울창한 숲을 보며 들의 꽃을 보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당신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불붙게하여 주옵소서.” 이영숙집사(2-6)

|오늘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통 권 제 219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12월 2일

함즐함울

www.pcltv.org

〈2007 대림절〉

사진 이원경

오늘 우리는 '희망의 초'에 불을 붙입니다.

2007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12.3일 (월)~8(토) 오전 5:00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대림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들의 삶과 마음과 행동에 오셨어요, 장차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심을 뜻한다는 것이다.

초기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초'였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성탄절 4주 전부터 예배실에는 5개의 초가 설치되고 차례로 점화된다. 그 중 3개는 보라색 초인데, 그것은 기독교인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으로 희망, 평화, 그리고 사랑을 상징한다. 4주째 켜지는 빨간색 초는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성탄절 당일 켜지는 하얀색 초는 예수님의 생일을 나타낸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희망의 초'에 불을 붙인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내일부터 6일간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초기 기독교인과 같이 대림절의 참 의미를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이다.

박원호 담임 목사

길가예로 초대합니다!



이인호 목사

2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고 정든 교회를 떠나 주께서 주신 땅으로 이주해온 30~40여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번식이라는 비전이 참 좋았기에,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고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친구같이 마음을 합하여 2년을 하루처럼 느끼며 기쁨의 나날을 보낸 것뿐인데 주님은 200여명의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교회가 처음으로 번식한 길가예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남양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맡겨주신 많은 일을 감당하느라 1인 3역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할 수 있어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바로 길가예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두 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이에 본토 아버지의 집 친척, 친지 분들을 초대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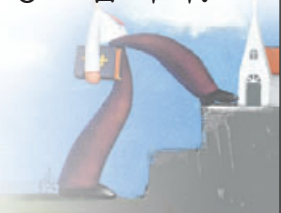
길가예교회 온교우 올림



길가예교회 창립2주년 기념예배

일시. 2007.12.9. 오후 3시 장소. 여호수아홀

주일, 엘리베이터를 양보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가 있어 평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주님의교회 교인입니다. 함즐함울을 통해 교회 성도님들께 작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해서 글을 씁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장애우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끔은 일부 성도님들께서 "제가 도와드릴까요?"하면서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

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 하곤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어지간한 일들을 스스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 없이는 절대로 층을 이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5층에서 부터 타고 내려오시기 때

문에 혹 2층에서 문이 열리더라도 그 사이를 뚫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은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는 것은 저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것은 주일날만큼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계의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 못한 커다란 축복입니다.

임혜연집사(5-10)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Ⅳ

전도서 3:1~8
디모데후서 4:19~21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다시금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와 십자가의 헌신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도 같이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삶 전체를 때가 기한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물론 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때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바울의 삶을 통해 오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쌍한 바울, 초라한 바울

바울은 삶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마지막을 순교로 마친 사도입니다. 지금도 로마를 찾는 분들이 바울의 감옥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그 쇠약한 몸으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갇힌 그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말년에 안식처는 로마 감옥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향한 글에서 우리는 늙은 사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힘 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모습을 갖도록 준비해할 것입니다. 비록 찾아오는 겨울이 두렵다 할지라도 준비만 잘한다면 오히려 복된 계절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는 마지막 순간은 긴 마라톤을 일등으로 마친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순간과 같습니다. 모든 힘이 다 쇠진해져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도 이렇게 마쳐야 합니다. 왜 바울만의 삶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도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안타까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떠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바울을 떠난 이유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쾌락과 물질과 편안함과 칭찬이 좋았기에 그들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물질과 쾌락과 칭찬과 성공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마지막은 허무와 공허함과 아쉬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아무 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

입니다. 왜 이들뿐이었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들 또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의 대상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17절)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감옥 속에 갇힌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풍성한 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함께함이 있습니다. 비록 그의 친구들이 그를 떠났지만 바울에게는 영원한 친구되신 예수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에게는 더 큰 기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사명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에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을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은 죽음이 다스리는 삶도, 죽음으로 끝나는 삶도 아닙니다. 생명이 다스리고 생명으로 향하는 삶이요 생명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선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를 만난 뒤부터 악에서 떠나 선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으로 채워지는 삶이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의 삶은 영생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은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신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초라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삶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영광의 원동력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간절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도록 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가가 겔옷과 가죽으로 쓴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는 마라야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헌신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만 버가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마가를 더 이상 선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마가는 후에 다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과 함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

모데와 마가를 교회 안팎의 적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겔옷을 가지고 오라!" 지금 바울은 극심한 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겔옷은 단순히 육신적인 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겔옷은 내가 주님을 섬길 때 항상 같이 했던 자신의 상징입니다. 그에게 겔옷은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할 때, 복음을 가르칠 때, 폭도들이 달려들 때에도 걸쳤던 옷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덮어썼던 옷입니다. 그에게 겔옷은 선교의 도구요, 기도의 도구였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주님의 겔옷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입으셨던 그 겔옷이 로마 병정들에게 찢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겔옷을 찢기시면서, 자신의 몸도 찢겼습니다. 겔옷이 버려지시면서 자신의 생명도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 겔옷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영생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겔옷은 무엇보다 십자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겔옷이 있었기에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무슨 책이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내용들을 적은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때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가 기록한 주님의 행적이 훗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터전이 된다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마가가 그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복음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올 이단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마가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결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악으로 몰려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가 말씀에 헌신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다시금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와 십자가의 헌신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겨울은 다가오지만 이 겨울은 결코 지난해에 왔던 그 겨울이 아닙니다. 역사는 윤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 힘 있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겨울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겨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 구원의 겨울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금 겔옷을 매만지며,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며,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로 템 나 무

“두 개의 길”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 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렘35:15)

집 근처의 작은 공원에는 시원스럽게 넓은 길이 있다. 잔디를 밟지 말고 그 길로 다닐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 길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새롭게 길이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서 만들어진 길이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길이 나란히 뻗어 있다.

나는 그 두 개의 길을 보면서 생각한다. 내 안에도 이렇게 두 개의 길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내 고집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 오랜 습관과 익숙함에 젖어 있는 내게.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다. 자꾸만 내 길로 가려는 나를 돌이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나를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주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저의 모습을 비추시고 고쳐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혜숙 기자



미술선교회 전시회를 마치고...



지난해 별 생각 없이 미술인 선교회 팀장을 맡았다. 신앙인으로서도 한없이 부족하고 미술인으로서도 더없이 부족하기에 미술인 선교회의 팀장을 맡을 상황이 아니었다.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용감했다. 하지만

만 시간이 흐르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선교회로써 해야 할 많은 일들...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 이번 일 도와 주실거지요? 만약에 안 도와 주시면 아시지요?" 주님을 향해 협박과 투정을 부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의 걱정은 기우였다. 이미 나의 주변엔 어쨌든 나에게 도움을 줄 많은 분들이 있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때면 변함없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아하...주님 이거였군요.? 어쨌든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 준비해 주셨군요.." 가끔 하늘을 향해 찡긋 웃어본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주간에 미술인 선교회에서 3번째 전시회를 가졌다. 처음 시작할 때 형체도 없이 막 생명이 시작되던 엄마뱃속의 아기 같았는데 이제 제법 걸음마를 시작하기 위해 신발을 신은 기분이다. 모든 회원들이 전시회 준비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고 귀한 작품들을 내어 주어 감사한 마음이다. 함께 준비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 벅찼는지...전시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미술인 선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 또 그 다음해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감사와 감

동으로 채워질 것이다.

돌아보니 팀장을 맡고 나서 결국 내가 한일이라고는 회원들에게 도움 청하는 전화만 열심히 한 것 같다. 선교회 일을 마무리 하면서 내가 얻은 것은 기도 시간과 감사의 마음과, 너무 도움을 청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다..

오늘은 하늘을 향해 찡긋 웃으며 엄지손가락까지 들어 보였다.

"주님 너무 멋지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도장 찍어드립니다.

참! 주님 저 내년에 한 번 더 미술선교회일 하려구요...도와주실거지요?"

동경숙집사(5-12, 미술선교팀장)



구역 이끄미모임

소명의식, 죽어서도 꼭 하는 것! -구역장 공부도 마침내 끝나



위해 성령의 심지를 돌구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이창현 목사님의 찬양인도가 있는 후 박원호 목사님은 강대상 마이크를 잡았다.

목사님은 구역장들에게 "정의를 추구하는 모세"를 강의하기 시작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때 이른 서늘이 한바탕 쏟아진 뒤, 본교회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난 주 수요일예배후의 구역장 공부도 마지막 막이 되었다.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구역장들은 마지막 공부를

위해 성령의 심지를 돌구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이창현 목사님의 찬양인도가 있는 후 박원호 목사님은 강대상 마이크를 잡았다.

목사님은 구역장들에게 "정의를 추구하는 모세"를 강의하기 시작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절대절명의 기회에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모세가 소명 깨달은 때는 언제이며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물음을 던지고 구역장들의 모습을 살폈다. 이윽고 한 집사님이 말했다. "모세가 소명의식을 깨달은 것은 자기 민족을 학대한 사람을 죽인 후 그가 쫓김을 당하며 소명의식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봅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소명의식이란 죽어도 꼭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어도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육신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구역장 공부에 임하는 모든 구역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하태원 기자

